

# 外海 토픽

## 바다물에서 「우라늄」 채취?

바다물에서 많은 양의 우라늄을 채취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곳에 한 전문가가 말했다.

영국에서 연구를 계속한 「트리에스터」 대학교의 「페루치오·모세티」 교수는 바다물에서 「우라늄」 자원이 채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전문가들은 산화「티타늄」으로 처리된 특수기구를 이용하면 바다물에 막대하게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을 채취 할 수 있다면서 해수에는 매일 방「미러」당 약 3천mg의 「우라늄」이 함유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마이탄신」은 백혈병에 특효?

최근 식물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종 「항암제」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신종 「항암제」의 하나는 「이더오피아」와 「캐나」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관목에서 유도해낸 「마이탄신」이라는 이름의 화학물질이다.

미국 「비자니아」대학의 「모리스·커프찬」박사는 미국암 「세이너」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마이탄신」은 초기 실험에서 백혈병에 걸려 있는 쥐의 목숨을 2배로 연장시켰다고 말했다.

이 새로운 「항암제」는 지금껏 세균에서 추출해낸 것과는 달리 식물에서 얻어낸 최초의 항생제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커프찬」박사는 주장하고 식물에서 이러한 종류의 항생제가 더 많이 발견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실험단계에 있지만 「마이탄신」이 토양에서 세균에 의해 배양된 다음 관목의 뿌리조직에 흡수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듯 하다고 내다 보았다. 「마이탄신」은 마른 관목에 5백만분의 1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는 극히 희귀한 것. 하지만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 광범위하게 복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커프찬」박사는 현재 0.1 「온스」의 「마이탄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으며 이를 인간에게 실험하기 위한 일련의 예비 실험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 종이 벽돌 출현 물과 열에도 견디다고

미국 「센프란시스코만」에 있는 「와그너·레인지」 국민학교에 종이 벽돌 건물이 세워졌다. 이는 「스탠더드」 석유회사 분석화학 연구소장으로 있다가 은퇴한 「로버트·매치슨」氏가 혼신문지나 현접지 등을 물에 담그고 「시멘트」를 섞어 「나트륨」계의 염산을 섞어서 압착하고 곁에는 「아크릴」철을 해서 만든 것인데 조수로 국민학교 아동들을 썼다고 한다. 그런데 이 종이벽들은 보통 벽돌보다 폭이나 길이가 크고 무게도 1.1kg나 되며 물이나 열에 대한 내구력에도 변함이 없다고 한다.

## 다이얼 電話는 舊式? 키—만 누르면 通하는 電子式을 開發

西獨에서는 멀지 않아 다이얼을 둘리는 舊式電話와 告別을 하리라 한다.

簡單히 키—만 누르면 되는 電子電話를 研究中인데 西獨郵政省은 이미 試驗을 끝냈다고 한다. 따라서 75년부터 段階的으로 比較的 時間이 걸리는 다이얼 式電話를 이 電子電話로 대체시킬 方法이다.

이 計劃에 따라 늦어도 85年까지 西獨人們은 보다 빨리 통화를 나눌 수 있을 뿐더러 이런 電子電話에 달린 2個의 特殊 키—를 使用하여 요란한 벨소리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 「섹스」는 心臟病 치료에 有効 美醫師 주장

「섹스」는 체력의 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齡命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다고 최근 美國의 「유진·쇠이맨」 박사가 주장했다.

그는 「섹스」와 심장병의 상관관계를 논하면서 「『섹스』는 심장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섹스』에 좌절을 느끼는 사람은 심장병을 앓기 쉽다」고 경고했다. 「섹스」의 권위자이며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쇠이맨」 박사는 이어 앞으로도 수백만인이 심장병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

이지만 「이같은 무서운 질병을 고치는 단 한 가지의 간단하고 값싼 즐거운 치료방법은 오로지 「섹스」뿐이라고 주장했다.

## 멀지않아 日本에서 만능 TV가 선을 보인다

「동경」에서 지금 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이 TV는 집안에서 쇼핑을 하고 뉴스나 음악도 마음대로 플라들을 수 있으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도둑이나 화재등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萬能 TV다. 일본 통산성은 4개년계획에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림정보 제공제도」란 이름의 새 TV가 계획 실시된다.

이 「텔리비전」은 한마디로 정밀한 조작에 의한 구역 「안테나」 TV 제도인데 현재 7개 「채널」로 한정되어 있는 일반에 비해 최소한 34개의 「채널」을 가진 공동축 「케이블」을 갖게 된다고 통산성 대변인은 말했다.

즉 TV방송국에서 시청자에게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TV 「세트」에 「키보드」가 부착되어 정보제공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또 사용자는 방영되는 순간 내용을 고를 수도 있고 또 TV의 그림을 보아 보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레스도량」의 메뉴도 예약할 수 있다.

가스가 스며들고 기온이 변하거나 도둑이 들 때는 탐지기에서 컴퓨터에 신호를 보내 경보를 울린다. 주부들은 외출 중에라도 「히터」를 조종하고 「오븐」을 끌 수 있다.

첫 단계로 신문사 상품회사 전자계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회사의 공동제조회사가 설립되고 시험TV총이 세워질 것이며 시험총에는 약 3배가구쯤 입주할 것이라 한다.

## 「방사선」 이용 독가스 제거

일본 기계류를 만드는 제작소에서 세계 처음으로 방사선을 이용하여 독가스인 이산화유황 「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한다.

# 海外 토픽